비교문화연구 제50집 (2018.3) pp.347~370

비교문학연구방법론에 대한 소고: 길고 약하고 두껍게 비교하기*

박 선 주
(인하대학교)

국문초록

이 논문은 비교문학방법론의 쇄신과 재개념화의 방향을 제안한다. 비교문학은 서구중심주의와 식민주의의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고 보편–특수라는 서구 근대학문의 인식론에 갇혀있으며 비교문학연구 방법론은 이러한 한계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비교문학은 기존의 등가 · 등치 관계에서 벗어나 디목의 "약한 이론," "긴 네트워크," 푸코의 "작가의 소멸" 등의 개념이 제시하는 방향, 즉 서구학문의 보편성 · 과학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문학담론의 역사성과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방법론의 변화가 담보되어야 한다.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의 "켜켜이 쌓인 묘사"라는 개념은 비교문학연구방법론을 재개념화하기 위한 유용한 출발점이다. 이 개념은 문화를 텍스트에 대한 해석들이 쌓아올리는 두께로 재정의하고 국민국가의 국가성을 다언어적 혼돈 위에 재설립하며 인문학의 과학성을 픽션화한다. 또한 근대학문의 체계화와 분류화, 추상화를 최대한 피하면서 과학성 · 합리성 ·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서구내셔널리즘을 문제화하고, 인간 삶과 그 의미의 풍부함을 충실히 드러내면서 문학담론을 더 '약하'고 더 '길'며 더 '두꺼운' 네트워크로 재개념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주제어 : 비교문학, 문학연구방법론, 클리포드 기어츠, 켜켜이 쌓인 묘사, 약한 이론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www.kci.go.kr

Ⅰ. 들어가는 말: (비교)문학

문학연구는 모든 다른 근대지식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문학 혹은 세계문학이라는 대범주 아래에는 다양한 하위범주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성격에 따라 작품과 비평연구들이 정렬된다. 19・20세기 이후 '문학' 아래로는 미국문학, 한국문학, 일본문학 등 주로 국민국가 문학이 배치되었고, 각각의 국민문학 밑으로 인종문학, 여성문학, 노동문학, 이민문학, 장르문학 등 많은 하위범주들이 자리하였다. 이 분류표에서 비교문학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지만 최근 비교문학은 여타 국민문학들과 비견한 위상을 주장하며 학제와 학문 안에서 대범주 '문학'의 바로 아래 자리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교라는 방법론이 갖는 중요성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도 하다. 신생분과학문이나 학술지의 제목에 '비교'라는 용어는 점점 더 빈번히 등장하며, 실제 연구에서도 서로 다른 언어문화권의 텍스트들이 갖는 관계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작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급속한 지구화와 가시화되는 다문화, 디지털을 매개로 한 문화의 즉각적인 이동 등의 시대적 현상 속에서, 이제 비교라는 행위는 오늘날 세계를 분석하는데 적절하게 특화된 연구방법론으로, 비교문학은 21세기형 문학연구의 전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분류표에서의 위계관계와는 별개로 **근대문학에서 문학은 항상 비교문학이었다**는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근대 이후 '문학'이라는 것이 독립된 학문으로 제도화되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역사적 과정 속에는 '(서구와의) 비교'라는 행위가 핵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학은 서구국민국가라는 공동체의 언어・문화적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 안에서 구상되고 진화하였으며[1] 한 국민국가가 다른 국민국가와의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국가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문학 역시 필연적으로 '비교'를 내면화하였다. 괴테의 "세계문학(Weltliteratur)"의 등장은 잘 알려져 있듯 19세기 유럽 내 각국의 국민문학들이 상호 비교와 경쟁 속에서 세력화하던 역사적 맥락에 근거하고 있다. 비서구의 경우 '문학'이라는 학문이 이

1)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y* 참조.

www.kci.go.kr

식되어 발전하고 제도화된 과정은, 복잡한 여정을 거쳐 번역되어 소개된 서구 세계문학(혹은 국민문학)이 소위 '문학성'이라는 것의 규준이 되어 비교의 준거를 마련함으로써 가능했다. 근대문학연구는 서구이건 비서구건 이 준거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그것과의 비교를 멈추지 않는다. 즉 비교문학은 문학의 하위범주가 아니라 문학 그 자체이다. 문학이란 (비교)문학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는 '문학' 앞에 은밀히 숨겨져 있다가 특정한 종류의 문학연구를 지칭할 때에만 나타나곤 한다. 이는 '비교'에 담겨있는 정치적인 함의 때문이다. 실제로 비교문학, 혹은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교언어학은 식민주의라는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인도・유럽어족 연구를 선도한 영국인 윌리엄 존스(William Jones)는 동인도주식회사 프로젝트의 수장이었으며, 그는 수 백 여개에 달하는 언어들을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언어들 간의 계보를 만들고 이에 기반한 비교언어방법론을 정립하였다. 존스가 인도에서 경험한 것은 엄청난 홍수와도 같이 한데 섞여 몰아치는 언어적 혼돈이었지만 그는 페르시아, 아라비아, 인도 등 각각의 개별 언어와 텍스트를 분리해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였다. 즉 그의 작업은 언어의 정체성 자체를 통제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으며 이는 영국의 인도 통치라는 정치적 규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인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존스의 비교언어방법론은 식민통치의 규율을 연구방법론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인도에서 시작한 존스의 연구방법론은 거꾸로 서구로 돌아와 당대 유럽의 낭만주의 문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문학연구 안에 비교라는 메카니즘의 은밀한 작동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최근 연구들은 비교문학 논의의 출발점에 괴테의 "세계문학"을 놓을 것이 아니라 윌리엄 존스의 비교언어학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교문학 성립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식민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의 존재를 더 날카롭게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다.[2] 즉 '문학'은 서구중심주의적인

2) Ahmed와 Bhattacharya는 존스가 인도에서 수행한 문헌학적 작업으로부터 비롯한 비교언어학이라는 성과의 식민주의적 성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Mufti는 비슷한 맥락에서 "세계문학"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는 식민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프랑코 모레띠(Franco Moretti), 댐로쉬(David Damrosch), 까사노바(P. Casanova) 등 기존의 세계문학 논의에는

www.kci.go.kr

개념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식민통치의 규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무엇이고, '문학' 앞에 괄호로 숨겨진 (비교)는 우리의 언어와 담론 실천에 드리워진 식민주의의 짙은 그림자이다.

그림자로 숨겨진 식민주의는 인식적 차원에서 서구국민국가체제의 버팀목으로 작동한다. 레이 초우(Rey Chow), 하루투니언(H. Harootunian), 사카이 나오키(Naoki Sakai) 등의 연구자들은 학문에서의 비교가 대부분의 경우, '서구=보편'라는 준거 위에서 그 준거의 온전함과 타당함을 승인하고 강화하는 위계적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비교라는 방법론 자체가 이미 연구결과를 규정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비서구, 여성, 이주민, 노동자 등의 타자들은 '특수'로서 충실히 연구되지만 이들이 비교라는 방법론으로 다루어질 때면 그 위험한 타자성은 순화되고 제거되어 기존의 준거를 인준하는 수단으로 격하되곤 한다. 다양한 언어들의 독특한 실천양상이 풍부하게 관찰되고 있지만 (비교)문학연구 안에서 그것은 '문학성' 혹은 '(서구)문학사'라는 준거에 의해 평가되고 분류된다. 비교의 준거인 서구와 국민국가체제가 확보한 보편으로서의 위상은 공고하며 그 체제 속의 위계는 자연스럽게 내면화된 모습으로 유지된다. 학문연구의 인식적 전환과 식민주의의 청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교 패러다임의 구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비교'라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현재 대면하고 있는 소위 문학의 위기는 문학연구 방법론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끊임없이 기존의 준거와 위계 안으로 대상을 포섭하고 분류하여 체계화하는 '비교'라는 방법론이 초래하는 학문적 난맥이다. 이 논문은 비교문학연구 방법론을 재검토하고 이의 쇄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60-70년대 이후 인문학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켜켜이 쌓인 묘사(thick description)"라는 개념을 꼼꼼히 분석하고 이를 새로운 비교 패러다임의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문학연구 방법론으로 도입하였을 때 (비교)문학의 이론과 범위, 범주에 일어날 수 있을 변화를 짐작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빠져있다고 비판한다.

www.kci.go.kr

II. 비교문학방법론의 패러다임 전환: 등가·등치에서 "긴 네트워크"로

비교문학연구의 생래적인 서구중심적 성격에 대한 고민과 반성적 성찰은 이론적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연구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교문학의 연구방법론은 19세기 이후 최근까지도 주로 등가·등치 관계를 기본틀로 하여 수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비교연구에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다언어) 텍스트들이 우선 등가의 것들로 상정되고 그들의 등치관계 위에서 쌍방 간의 영향, 교차, 모방, 차이 혹은 이전과 이동 등 상호텍스트적 양상이 논의된다. 사물과 언어, 경험과 정체성 등은 나란히 놓여져 그 가치와 의미가 저울질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존 학문의 분류표는 더 조직적으로 체계화된다.

레이 초우는 다언어를 비교연구의 전제로 하는 기존 비교방법론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취한다. 우선 언어와 언어, 문화와 문화,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는 실제로 등가와 등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고 중립적인 관계를 당연히 전제한다면, 이런 연구는 언어들 사이에 명백히 존재하는 문화자본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초우에 따르면 비교연구란 단언어·다언어 여부에 상관없이 서구적 학문의 보편이라는 준거, 더 나아가 서구학문 그 자체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간-문화적 역사성을 담보해야 한다.[3] 사카이 나오키, 리디아 류(Lydia Liu) 등의 연구자들은 등가·등치관계로 인해 비교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비교의 동학 자체가 서구와 비서구 사이에 등가·등치관계를 "발명"해 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 동학이야말로 근대의 에피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임을 말하고 있다.[4]

---

3) Chow, "The Old/New Question of Comparison" 참조.

4) 사카이는 근대 이후 서구와 비서구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쌍-상형(co-figura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근대 일본이라는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 정체성은 서구와의 이 "쌍-상형"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리디아 류는 서구가 비서구에 번역되는 과정을 통해 비서구에서 서구적 용어에 대한 등가(equivalents) 용어들이 새로이 발명된 예를 들며, 번역을 언어 간 등가·등치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가 협상되고 창조되는 공간으로, 즉 "신조어적 상상력(neologistic imagination)"

www.kci.go.kr

비교라는 방법론이 단순히 연구수행의 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근대라는 거대한 에피스템을 떠받치는 핵심적 요소로 기능하면서 근대의 짝이라 할 수 있는 식민주의를 학문영역에서 재생산하고 있다면, 비교는 분명 다른 방식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서구-비서구라는 이분법 위에서 생성되는 교환 가능한 등가물의 "발명", 그것의 내면화・포섭이라는 특수/보편 사이의 폐쇄적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서 사물들의 '다름'과 '비슷함'을 바라볼 수 있는 패러다임의 쇄신이 필요한 것이다.

웨이 치 디목(Wai Chee Dimock)의 "약한 이론(Weak Theory)"이라는 개념은 비교를 쇄신하고 재개념화하는데 유익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디목은 "긴 네트워크(long network)"라는 패러다임에 근거한 문학연구를 제안한다. 그녀는 문학사, 혹은 문학텍스트들 간의 연관관계를 풀어내는 본인의 글은 이론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는, 말하자면 "약한 이론"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약한 이론"이란 이론으로서의 정합성과 광범위한 적용범위, 분석적 야심이나 학문적 권위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인간의 언어적 삶에 존재하는 다양한 현상들과 복잡하고 돌발적인 연관들을 기존 권력체제로 명쾌하게 설명해거나 단순하고 간명하게 일반화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그 대신, 권력과 주변적이고 비스듬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곧 그로부터 이탈해버리고 자취를 감추어버리는 가변적, 탈중심적, 다-위치적인 배열들을 다소 헐렁한 방식으로 잡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약한 이론"은 문학담론장을 제멋대로 엉키고 뻗어있는 실타래의 형태처럼 길게 늘어진 연결망으로 본다. 이 연결망 안의 텍스트들이 맺는 연관관계를 선으로 이어보면 갑작스레 끊어지고 엉뚱한 곳에서 돌출하며 간신히 이어지는 듯 하다가 그냥 사라지기도 하는 등 분명한 형체를 잡기 힘든 양태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또 멀리 보았을 때야 비로소 흐릿하게 "네트워크"라고 불리울만한 모양새가 겨우 나타난다. "긴 네트워크"는 이어짐이 아니라 끊어짐에 의해 불명확하고 흐릿한 연관성을 살포시 드러낼 뿐이며, 이 연약한 드러냄들 하나하나는 특정시공간의 움직임과 긴밀히 밀착되어있다. 이러하기에 개별적인 케이스를 통해 끊임없이 맥락화(contextualizing)를 해

으로 재개념화한다. Sakai Naoki, *Translation and Subjectivity*, Lydia Liu, *The Clash of Empires: The Invention of China in Modern World Making* 참조.

www.kci.go.kr

야만 하며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만이 기록되지 않고 포섭되지 않은 해석적 힘들이 비로소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 디목의 논지인 것이다.[5]

디목의 "약한 이론" 선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연결망의 강력함이 아니라 그 반대로 약함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관계망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경우 사물・정체성・텍스트들 간의 끈끈한 연관을 강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디목은 이들이 사실 대단히 헐겁게 이어져 있으며 심지어는 단절되어 있다고 본다. 이론과 그 대상이 되는 실제 삶・경험 간의 밀착력도 약하다. 이론이 삶을 논리적・총체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다는 믿음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작가-텍스트 간의 관계마저 희미하고 헐거워져서 언어적 주체 혹은 언어정체성이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문제화된다. 문학담론장을 길고 멀리 조망하면서 언어 간의 연관관계에 대해 정합적인 설명을 시도하지 않고 대신 끊어짐과 비-소통성(non-communicability)를 기반으로 하여 가늘고 불분명한 연결들을 세세히 관찰해나갈 때, 문학연구는 사실상 한 명의 저자, 하나의 작품, 하나의 장르라는 단위로부터 초점을 거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식의 논의는 디목이 처음은 아니며 이미 신비평부터 텍스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비평 흐름이 존재해왔다. 롤랑 바르트는 작가의 죽음을 선언했고, 푸코 역시 작가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기능'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푸코에 따르면 "작가-기능(author-function)"은 소위 '작가'라고 지칭되는 합리적・이성적 존재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파생된 복잡한 과정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개인으로서의 작가는 물론 현실적인 존재이겠지만 그와 동시에 작가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텍스트를 다루는 특정 방식에 대한 "투사(projections)"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푸코는 문학연구에서의 작가란 대부분 "통일성의 원칙(a principle of unity)"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한다. 특정 작가의 이름을 달고 있는 여러 개의 텍스트들 안에는 수많은 모순, 균열, 단절, 차이들이 존재하는데 작가라는 특정 개인을 상정하여 이 개인의 성장, 진화, 혹은 외부로부터의 영향 등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이 모순들의 날카로움을 중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6] 따라

5) Wai Chee Dimock, "Weak Theory: Henry James, Colm Toibin, and W. B. Yeats", 732-753 참조.

www.kci.go.kr

서 푸코는 작가를 '개인'이 아니라 '기능'으로 재개념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언어와 담론의 자기지칭성(self-referentiality)을 강조한다. 담론이 갖는 표현적 가치나 형식적 변화뿐만 아니라 담론이 담론으로서 존재하는 방식(mode of existence)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담론이 (특정 정체성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위에서 조율되고 발화되는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디목의 "약한 이론"은 푸코의 "기능으로서의 작가"와 맞닿으며 문학연구에서 비교를 방법론으로서 쇄신할 수 있는 일련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텍스트, 언어, 혹은 작가 개인에게 문화적・국가적・성적 정체성을 부여하여 이들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분류한 후 이들 간의 관계를 친연이나 적대, 영향이나 모방 등 명확히 인식가능한 (뻔한?) 관계로 묶고 가르는 것의 결과는 (이미 설정된) 분류표 안의 또 다른 분류일 뿐이다. 이는 끊임없이 서구국민국가체제의 담론을 반복하여 체제 안에 함몰되게 하며, 방법론 자체, 더 나아가 (비교)문학의 역사성을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메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한다. 디목과 푸코는 언어, 텍스트, 담론에 대한 논의에서 정체성의 명징성과 정합적・총체적 이론에 대한 (서구적) 강박을 해체한다. 왜냐하면 그 강박이야말로 문학을 (비교)문학으로 존재하게 하기 때문이다. 작가의 부재, 연결의 단절, 사라진 조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상과 사유는 문학을 깔끔한 경계선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잘 조직화된 언어구조물이 아니라, 희미하고 불분명하며 중간 중간 (소통할 수 없는) 깊은 균열이 새겨진 "긴 네트워크"로 다시 보게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상이 반영된 방법론을 통해서 문학담론장의 파편적이고 흐릿하게 사라져가는 '다름'이, 그 연약한 연결망(보편?)이 논의되어야 한다.

디목과 푸코의 주장은 연구의 패러다임 뿐 아니라 학문적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최근 연구에서 권력이 (혹은 작가 등 권력을 부여받은 주체가) 거의 대부분의 현상을 설명해주는 이론적・방법론적 만병통치약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권력은 많은 경우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강력한 설명틀로 기능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와 담론, 경험의 장에서 '실제로 권력이 그렇게까지

6) Michel Foucault, "What is an Author?" 113-138.

www.kci.go.kr

센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모호하고 희미한 파편들, 부재와 상실의 흔적들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끊임없이 맥락화하면서 담론을 역사와 사회 속에 위치 짓고자 하는 이들의 시도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삶을 권력이라는 마법의 단어로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지적으로 안이하고 게으르다는 학문적 비판이 들어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의 연구방법론은 오늘날 우리가 비교문학방법론을 새로이 구상하는데 좋은 모델이 된다. 문학연구를 논하는데 있어 인류학을 끌어오는 것이 생뚱맞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인식론과 방법론 측면에서 인류학이 부딪혀 온 문제들은 (비교)문학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사실 인류학이야말로 '서구/비서구'라는 (신화적) 정체성을 형성·유포하는데 지대한 책임이 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인류학은 노골적인 서구중심주의, 인종주의, 문명진화론 등을 전세계에 퍼뜨렸으며 기어츠를 비롯한 20세기 후반 성찰적 문화인류학자들은 이 어두운 유산에 맞서 세계 각지 인간의 삶과 그 '독특한 다름'을 최대한 '내부자의 시선'으로 쓰여진 민족지(ethnography) 작업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인류학이 서구중심주의를 노골적이고 공공연하게 표방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학문 내부에서 자기반성을 공론화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자성은 방법론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이끌어내었고 이로부터 민족지를 통해 문화를 기술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식이 논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류학이 서구중심주의를 근본적으로 탈피했는가와는 별도의 문제이다.)[7] 그렇다면 실제로 비교문학이면서도 비교를 괄호 안에 숨겨둔 채 그냥 문학인척 행세하고, 서구중심주의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순간에도 서구중심주의를 은근히 간직해온 문학연구는, 분명 인류학이 지나쳐온 궤적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특히 기어츠의 민족지학 방법론은 디목이 제안한 "긴 네트워크"에 두

7) 문화인류학의 방법론적 고민과 구상의 결과는 인접학문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역사학의 구술사 방법론, 최근 문학작품에서 두드러지는 '목소리-서사'등은 명백하게 문화인류학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많이 공유되면서 최근 역사학과 인류학, 문화연구 등에서 학제의 구분이 약화되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기어츠가 인접학문에 대한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Reddy, Sewell, Greenblatt 참조

www.kci.go.kr

께를 더하면서 언어와 문화, 글과 행위의 단독성—다름—을 특수/보편의 서구적 분류표 밖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도이다.

Ⅲ. "켜켜이 쌓인 묘사": 근대학문의 기획에 대한 도전

클리포드 기어츠는 문화를 사회나 권력을 지탱하는 하부구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자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본다. 기념비적인 저작『문화의 해석』에서 기어츠는 문화현상이란 일종의 텍스트이고 문화는 수많은 다양한 텍스트들의 집합체이며, 이는 켜켜이 중첩되고 얽힌 형태로 사회의 의미망을 구성한다고 본다. 즉 문화는 그 자체의 기호(sign)과 상징(symbol)로 이루어진 "상상적 우주(imaginative universe)"이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일반화된 법칙의 발견이 아니라 이 "우주"의 의미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이라는 것이다. 문화와 해석에 대한 기어츠의 생각을 가장 명징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켜켜이 쌓인 묘사(thick description)"라는 개념이다[8]. 이것은 민족지학을 쓰기 위한 방법론으로, 아주 간단한 인류학적 관찰을 필드노트에 옮겨 적는 행위도 이미 그 자체로 해석이라는 자의식 하에, 주어진 문화텍스트에 빼곡히 들어차 있는 갖가지 해석과 의미들의 층위들을 충실히 기술하고 풀어내는 것이다. 특정 행위나 의식, 행사나 제도 등 문화텍스트 안에는 여러 개의 다양한 의미와 해석들이 겹겹이 쌓여 있으며 이 수많은 의미층위들은 때로는 비슷하게 어울리고 때로는 모순되고 상충되기도 하면서 마치 지층의 단층처럼 겹쳐져 그 텍스트의 "두터움"을 만들어낸다. "켜켜이 쌓인 묘사"는 문화텍스트의 이러한 복잡함을 한 두 문장의 주제문으로 환원할 수 없음을 의식하면서 바로 그 의미 층위의 두터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다. 민족지학을 쓰는 인류학자는 필연적으로,

> 수많은 복잡한 개념 구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들 중 대부분이 서로에게 덧씌워져 있거나 혹은 상호 얽혀있으며 이 양상은 이상하고 불규칙하

8) 이는 '중층기술', '두터운 기술', '두껍게 기술하기'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문학연구에 적용하기 쉽도록 "켜켜이 쌓인 묘사"로 번역한다.

www.kci.go.kr

> 며 애매하기까지 하다. 이것을 [인류학자]는 어떻게든 우선 파악해야 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풀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p.10).[9]

기어츠는 "켜켜이 쌓인 묘사"의 예로, 모로코의 부족마을에서 무역업을 하는 유태인 코헨(Cohen)의 에피소드를 제시한다. 이 지역을 점령한 프랑스군과 그들의 지배에 저항하는 몇몇 부족들, 그리고 그 위험한 지역에서 물건납품과 장사를 하는 코헨 사이에 벌어지는 일련의 약탈, 협상, 배상, 폭력과 구금 등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이 에피소드는, 아주 기본적인 인류학적 묘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의미층들이 복잡하게 쌓여있는지를 보여준다. 프랑스군, 버버족(Berber), 유태인 상인의 공존은 곧 이들 각각이 갖는 상징체계의 공존을 의미하며 이 의미층들 간의 "체계적인 오해가 전통적인 [소통] 양식을 사회적인 희극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낳게 된다. 여기서 기존의 사회・경제・정치적 관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은, 서로가 서로의 "상상적 우주"와 그 안에서의 행위가 기호로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이는 "언어의 혼란(a confusion of tongues)"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9) 『문화의 해석』에 실린 기어츠의 가장 유명한 에세이라 할 수 있는 "발리의 수탉싸움(A Deep Play: Notes on the Balinese Cockfight)" 역시 "켜켜이 쌓인 묘사"로서 쓰여진 민족지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에세이에서 기어츠는 발리인들이 즐기는 수탉싸움을 분석하여 이 행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의 층위들을 기술한다. 이 사회에서 수탉싸움은 남성성의 표현이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의 문제이기도 하며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을 응축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체면에 관한 것이고 분노나 죽음에 대한 것이기도 하며 관대함을 주제로 한 것이기도 혹은 행운에 관해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탉싸움은 이런 의미들이 쌓여지고 다양한 현실들이 한데 합쳐져서, 잘 빚어진 하나의 이미지로서, 메타포로서, 혹은 픽션으로서 발리인들이 발리라는 사회를 어떻게 상상하고 해석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pp.412-454).

기어츠는 문화텍스트를 "켜켜이 쌓인 묘사"로 읽어내고 기술하며 그 텍

9) Geertz,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Books, 1973.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www.kci.go.kr

스트에 담긴 해석을 또다시 해석하는 인류학자의 작업은 사실상 문학연구자의 작업과 비슷하다고 인정한다. 민족지학을 한다는 것은 “생략, 모순, 수상한 교정과 편향된 주석으로 가득한 외국어로 쓰인 낡은 원고를 해독하려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10). 기어츠의 주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인류학적 글쓰기, 즉 민족지학이란 실제로 연구대상이 된 사람들의 입장에 초점을 두어 쓰여져야 하는데 (“actor-oriented description”) 이런 글쓰기 자체가 명백히 “상상적 행위(an imaginative act)”이며, 그런 의미에서 코헨 사건을 기록한 필드노트는 근본적으로 보바리 부인이라는 아낙네와 그 주변 인물들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묘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pp.15-16). 물론 인류학자의 필드노트와 플로베르의 소설은 창작의 조건이나 목적에서 분명 다르겠지만 둘 다 “구성된 것(a making)”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p.16). 기어츠는 발리의 수탉싸움 역시 잘 구성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본다. 기어츠에 따르면 수탉싸움은 그 사회의 기존 위계질서를 강화킨다거나 사회적 불만을 해소한다거나 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벌』 혹은 『리어 왕』 등의 예술작품이 서구사회에서 갖는 기능과 유사하게 작동한다. 길거리에서 경찰의 눈을 피해 몰래 벌어지는 수탉들의 피튀기는 싸움과 그것에 돈을 걸고 열광하는 군중의 양상은 발리라는 사회의 한 단면인 동시에 그 사회의 작동방식에 대한 메타적인 비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수탉싸움은 발리라는 사회를 해석하고 있으며, 발리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읽어내는 나름대로의 방식이라는 것이다(pp.432-453)

문화를 해석의 대상인 텍스트로 재개념화한 기어츠의 작업은 70년대 이후 인류학 뿐 아니라 인문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연구방법론으로서 “켜켜이 쌓인 묘사”가 갖는 함의와 가능성은 큰 울림을 주었다. 그러나 “켜켜이 쌓인 묘사”가 비교방법론으로서 간-문화적 비평의 도구로서 가질 수 있는 지평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 개념은 등가・등치의 낡은 패러다임을 대체하면서 비교의 개념 자체를 다시 사유하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무엇보다 이 개념이 민족지학의 방법론으로서 제시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인류학에서 “민족(ethno-)”라는 것은 주로 인종이나 부족 단위의 공동체를 지칭하지만 20세기 이후 민족지학이란 대부분의 경우 국민국가 단위의 문화공동체 연구를 가리킨다.[10] 문화공동체를 아우르는 특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만의 고유한 ‘공공성(publicness)’

www.kci.go.kr

를 언급해야 할 텐데 국민국가의 경우 공공성이란 국가성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켜켜이 쌓인 묘사"가 표방하는 공공성이란 국가성과는 분명 거리를 두고 있다. 기어츠가 구상하는 공공성은 보다 언어적 성격을 띤다. 그는 "문화는 공공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언어가 그렇기에.(culture is public because meaning is, p.12)"라고 말하는데, 이는 공공성의 성격 자체를 언어적 속성에 근거해 개념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미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사용되는 기호들 속에서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게다가 여기서의 '언어'란 기본적으로 언제나 다언어를 의미한다. 앞에서 소개한 코헨의 에피소드에서도 기어츠는 여기서 핵심문제는 "언어들의 혼란"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 [코헨의] 양떼를 [버버족이] 가짜로 강탈해 간 것, [그들이] 양떼들을 다시 [코헨에게] 돌려준 것, 그런데 그 양떼를 [프랑스] 경찰이 정치적 이유로 몰수한 것—이런 양떼와 관련한 일련의 길게 이어지는 사건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담론이다(혹은 이었다). 비록 […] 그 담론이 다언어로 또 언어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수행되고 있지만 말이다(p.18).

즉, 기어츠의 "켜켜이 쌓인 묘사"가 담보하는 민족지학의 공공성에는 흥미롭게도 다언어로 인한 혼란과 오해가 핵심으로 자리한다. 게다가 여기서의 '다언어'란 문자 그대로 여러 개의 언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코헨은 상인으로서 프랑스어에도 버버족 언어에도 능통하다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언어 환경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인식, 개념, 감정과 의미구조 등이 혼재하며 당연히 한 언어 안에서도 다언어적 오해와 혼돈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11] 만약 국민국가에 대한 민족지학을

---

10) 민족지학의 '민족(ethno-)'의 범위는 최근 이삼십 년 간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문화인류학의 성과들은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에 대한 경계를 반영하여 계층, 연령, 경험, 지역, 성별 등 훨씬 세분화된 민족지를 시도한다.

11) 기어츠의 이론이 문화공동체 내부의 이질성, 갈등과 변화, 힘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일견 기어츠가 "프랑스인" "버버족" "유태인" 등 공동체 전체를 묶어서 다루는 듯 하기도 하다. 그리고 실제로 기어츠가 이를테면 "프랑스인"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

www.kci.go.kr

"켜켜이 쌓인 묘사"로서 수행한다면 그 안의 억눌리고 끊어진, 혹은 조각만 남은, 다양한 양상의 의미구조들이 얽혀 있음이 나타나고 이 복잡하게 쌓인 언어의 단층구조를 통해 담론의 역사적・사회적 관계가 생생히 드러난다. 즉 단언어적 화합과 통일성을 전제하는 국민국가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적 담론이란 필연적으로 다언어적 오해, 실수, 비-소통성에 의해 구성됨이 명백해진다. 그렇다면 다언어적 비-소통성을 문화공동체의 기본 성격이라고 했을 때 "복잡성, 확신의 부재, 서로 다른 감수성을 연결하고 그들을 서로서로에 대해 부각시키는 작업이 불러낼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인식]차원의 등장"은 필연적이다. 이는 "번역과정에서 나타나곤 하는 어렵기 짝이 없는 인식, 즉 민족지학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A Strange Romance", p.32)이며, 또한 비교문학연구가 갖추어야 할 인식과 기술이기도 하다.

"켜켜이 쌓인 묘사"가 언어적 혼돈을 민족지학 기술의 핵심에 두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사실 그 혼돈 때문에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기어츠는 "켜켜이 쌓인(thickly)"이라는 표현을 종종 "지적으로(intelligibly)"라는 말과 함께 쓰곤 한다.[12] 그에게 지성이란 삶의 복잡성을 손쉬운 설명이라는 명목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그 복잡함을 최대한 살려서 제시하려는 정직성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서 '정직성'이란 태도의 문제이며, 텍스트의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기어츠에게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게 모든 묘사는 해석이다. 심지어는 원주민들의 진술조차 스스로의 삶에 대한 본인들의 해석일 뿐이다. 실제로 "켜켜이 쌓인 묘사"를

적인 다양한 목소리들을 다루는 연구를 그다지 많이 수행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켜켜이 쌓인 묘사"는 문화공동체 내부에 '외국어'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많은 언어적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암시한다. 여성, 노동자, 각종 이해집단의 언어도 이런 의미에서는 '외국어'들이며 이들의 공존 자체가 "언어들의 혼란"인 셈이다. 기어츠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는 Nicholas B. Dirks, ed., *In Near Ruins: Cultural Theory at the End of the Century*, William Roseberry, "Balinese Cockfights and the Seduction of Anthropology" 참조.

12) 기어츠는 이를 여러 번 반복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다. 예를 하나만 들자면 "[…] culture is not a power, something to which social events, behaviors, institutions, or processes can be causally attributed; **it is a context, something within which they can be intelligibly—that is, thickly—described**.", p.14. (필자 강조)

www.kci.go.kr

통해 해석이 해석되고 그것이 또 해석되는 복잡한 구조를 드러내는 것은 주어진 텍스트의 "언어적 혼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틀"로 "가공"해내는 (유일하게 가능한?) 작업이기도 하다.

"켜켜이 쌓인 묘사"는 이런 의미에서 "픽션"이다. 앞에서도 소개했듯, 기어츠에게 민족지학, 즉 인류학적 글쓰기란 『마담 보바리』를 쓰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둘 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개별성을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극히 평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그들만의 평범성이라는 틀에 넣어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없앤다"(p.14). 코헨의 에피소드는 필드노트에 적힌, 기승전결이라고는 없는 장황한 진술이지만 그 진술 자체가 이미 해석이다. 그리고 이는 플로베르가 엠마 보바리의 진부한 일상을 무서울 정도로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그 자체로 해석인 것과 같은 이유이다. 인류학자 기어츠는 이 에피소드의 "켜켜이 쌓인 묘사"를 통해 20세기 초 모로코 지역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쟁, 화해, 협상, 오해, 폭력 등의 "언어적 혼란"을 진부하고 일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평범함으로 재구성된 의미층들의 결을 다시 해석함으로써만 이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 세계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다. 발리의 수탉싸움도 마찬가지다. 수탉싸움은 발리인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경험이 예술작품과도 같이 잘 가공된 것이다. (기어츠가 말하듯, 수탉싸움이란 수탉들에게만 실제인 상황이다.) 그 "상상적으로 구현된" 모습에서 발리 사회의 일상적 경험의 "두터운" 의미는 강력하고 명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된다.

요약하자면 기어츠는 '픽션이야말로, 해석에 대한 해석들이 복잡하게 쌓인 의미의 혼돈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지식이다'라는 역설적 주장을 펼치는 셈이다. 그리고 여기서 의미하는 픽션이란 천재적인 개인이 창조성을 발휘하여 의미를 조율하고 통제하면서 만드는 가공의 그 무엇이 아니다. 이것은 해석이 해석되고 그 위에 또 해석이 쌓인 것들을 해석하는, 어찌 보면 매우 집단적이고도 지극히 익명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담론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낯선 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앎'에 (조금이나마) 도달한다. 기어츠는 이런 주장을 통해 분류와 체계를 그 특성으로 하는 근대학문의 유효성을 문제화하고 인류학의—더 나아가 학문의—과학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파고든다. 픽션이란 '진실 대 허구'라는 이분법을 떠나 세계

www.kci.go.kr

를 이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행되는 해석 작업이며, 이 작업은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어느 언어, 어느 시각, 어느 위치에서건 끊임없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켜켜이 쌓인 묘사”는 해석이 갖는 근본적인 가공성, 픽션성을 직시하고 (특정한) 픽션(해석)을 낭만화, 사소화, 혹은 비과학화, 주변화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픽션들, 해석들, 의미들, 그 행위들이 모아져 이루어내는 두께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지식화하는데 가장 유효한 과학성이며 지성이라고 보는 듯하다.

기어츠는『작가로서의 인류학자』에서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담보하는 과학성이라는 것이 픽션(글쓰기)에 깊이 근거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인류학자가 민족지학을 통해 독자를 설득하는 방식은 사실의 엄정함이나 과학적 이론의 정합성이 아니다. 인류학자가 실제로 “그곳(THERE)”—이상하고 생경한 낯선 이들이 사는 “그곳”—의 삶에 어떤 형태로던 파고들어 결국 “그곳”의 본질과 아주 가까이 만났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야말로 이 학문에서 관건이며 바로 여기서 “글쓰기”라는 요소가 핵심적으로 개입한다. 레비 스트로스, 에반스 프릿처드, 말리노프스키, 루스 베네딕트 등 저명한 인류학자들이 학자로서 성공한 비결은 그들이 “그곳”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그곳”을 깊이 경험했다는 그 실감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글쓰기 능력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학의 학문으로서의 과학성은 문학—픽션—글쓰기 안에 있는 (정의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학문이 학문으로 서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과학성 자체가 재개념화되는 것이다. 이는 근대학문이 체계와 분류를 통해 삶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 구조들을 단순화, 추상화하여 ‘보편적’ 진실로 환원하는 것에 대한 기어츠의 대응이며, 비교문학이 쇄신을 위해 출발점으로 삼아야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권력과 자본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온 현실에서 등치・등가관계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비교문학연구에서 (거의 유일한) 모델로서 장수해온 것도, 문학이 너무 쉽게 서구근대학문의 ‘과학적’ 체제에 포섭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잡성과 언어적 혼돈, 허구적 가공을 지성의 뿌리로 삼는 “켜켜이 쌓인 묘사”가 인류학뿐 아니라 비교문학 연구방법론으로서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 아마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라는 것의 어떤 성격—체계적 조직화에 포섭되지 않고 빠져나

www.kci.go.kr

가는—은 애초에 기어츠가 공동체의 공공성과 해석의 가공성, 근대학문의 과학성을 재개념화할 수 있었던 발판으로 작동한다. 기어츠는 문화에 대한 해석적 접근이라는 것이 주관성, 상대주의, 직관주의의 위험을 항시 지니고 있으며 디테일의 즉각성에 함몰되어버리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예측가능한 정합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비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켜켜이 쌓인 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있게) 방어한다. "그것은 어느 순간 왔다가 사라지는 통찰력과 논리라고는 없는 순전한 주장으로 [체계적인 과학성을] 대체하고, 수많은 의견들의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내놓는다. 꼭 문학처럼." ("A Strange Romance", p.29).

어떤 의미에서 비교문학 연구방법론의 재개념화라는 문제는 바로 이런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서구근대학문의 체계가 (그리고 서구국민국가체제가) 과연 정합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의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 자체가 방법론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어츠는 소위 과학성이나 논리적 정합성, 일반화를 추구하는 방법론이 인류학연구에—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인문학 전체에도—적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국지적인 탐구로부터 일반적인 진실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 연구자의 야망이겠지만 특수에서 보편으로의 그 이동이란 지극히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사실상 결점투성이라는 것이다. "존스빌이라는 소도시는 곧 미국이다" 혹은 "태평양에 고립된 섬이야말로 자연적 [진화의] 실험 케이스이다"라는 식의 특수・보편 방법론이 갖는 오류는, 우선 지극히 식민주의적이고 서구중심주의적이라는 점을 제쳐두고라도, 그 무지막지한 논리의 비약로 인해 "넌센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도무지 그런 논리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라는 것이다(pp.21-22). 그러나 실제로 이런 식의 방법론이 인문학, 그리고 비교문학연구에서 오랫동안 정합적인 (그리고 유일한) 논리로 사용되어 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발리의 수탉싸움"이라는 에세이가 불러일으킨 뜨거운 논란 역시 학문세계에 팽배한 "넌센스"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어츠가 이 에세이에서 발리의 수탉싸움이 그 기능에 있어『죄와 벌』혹은『리어 왕』과 비견할 만한 문화텍스트라고 주장하자 많은 서구연구자들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기어츠가 도덕을 파괴하고 상대주의를 유포하며 무엇보다 서구문화라는 것 자체를 해체한다며 비난을 퍼부었는데, 이런 격앙된 반응 역시 부분에서 전체

www.kci.go.kr

로의 비약이라는 (결점투성이)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한 논리에는, 저속한 시장통에서 노름꾼들이 벌이는 닭싸움은 발리인의 정체성이고 인류문명의 가장 고귀한 표현인 도스도예프스키와 셰익스피어의 정전들은 서구사회와 바로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어츠는 이에 대해 "인간성을 성취하겠다는 인간의 가장 절실한 호소가 어떻게 집단적 오만함의 억양으로 발화될 수 있는가?"라고 되묻는다(p.22). 인문학 연구에서 과학성이란 어쩌면 서구국민국가의 "집단적 오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특수에서 보편으로 가는 것이 (학문적으로) 안일하고 (정치적으로) 무기력할 뿐 아니라 논리적 넌센스라면 우리는 특수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기어츠는 "[문화이론이란] 켜켜이 쌓인 묘사가 제시하는 즉각성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내적 논리에 의해 그 형태를 발전시킬 여지가 별로 없"으며 민족지학에서 "최대로 성취할 수 있는 일반화라는 것이 있다면 [다층적인 묘사들을] 싹 추상화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묘사가 만들어내는 미묘한 차이 하나하나를 구분하는데서 나온다"(p.25)고 주장한다. 즉 문화텍스트의 지층을 이루는 복잡한 의미구조들을 빠짐없이 성실히 기술하고 개별 의미구조가 서로에 대해 갖는 차이가 아무리 사소하다 하더라도 그들 각각의 포섭되지 않는 단독성을 충실히 새기는 것이야말로 환원화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일반화)이라면 결론이라는 것이다.

물론 기어츠의 방법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 "켜켜이 쌓인 묘사"가 연구대상에 대한 물화와 손쉬운 단순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일단 연구라는 틀 안에서 어느 정도의 물화와 대상화는 사실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다. 또 이것이 인문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에도 과연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적 반론도 가능하다. 이론이라는 것이 추상적 모델로서 가지는 가치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 "켜켜이 쌓인 묘사"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에세이인 "발리의 수탉싸움"에서 기어츠가 과연 특수에서 보편으로의 이동을 피했는가? 라는 질문에 잠시 멈칫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켜켜이 쌓인 묘사"가 인문학과 그 방법론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이자 유효성 높은 대안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는 더 나아가 민족지학이, 또 문학연구가 서구국민국가체제에 봉사하는 담론이 아닌 다른 언어실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근대학문의 체계화와 분류화, 추상화를 최대한 피하면서 과학성・합리성・보편성이라는 이름으

www.kci.go.kr

로 행해지는 서구내셔널리즘을 문제화하고, 인간 삶과 그 의미의 풍부함, 불가해함, 흐릿하게 꺼져가는 연약한 빛들을 최대한 많이 또 충실히 드러내고자 하는 기어츠의 작업은 디목이 말하는 "약한 이론", "긴 네트워크"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Ⅳ. 비교문학과 "켜켜이 쌓인 묘사"

다시 비교문학연구로 돌아가보자. 인류학과 문학이라는 학제적 차이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사실 "켜켜이 쌓인 묘사"로 수행된 민족지학은 문학연구와 딱히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스티븐 그린블랏(Stephen Greenblatt)을 필두로 하는 신역사주의 비평은 기어츠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그린블랏은 문학텍스트와 비문학텍스트가 서로에게 "켜켜이 쌓인 묘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p.22) 셰익스피어 등 정전과 평범한 일상의 파편이 희미하게 남은 16・17세기의 잡다한 문헌들을 함께 읽으며 실제 경험과 삶이 문학 텍스트 안으로 기록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서구문화의 정전에 부여되었던 특권을 평범한 일상의 파편에도 부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신역사주의 비평은 스스로 "약한 이론"이 되기를 주저하며 서구정전에 부여되는 특권을 (그리고 과학성을) 문제화하지 않는다. 그 결과 신역사주의 비평의 성취는 서구정전의 특권의 일부를 서구문화의 일상에 부여하는 것에 그치며 결과적으로 근대문학연구의 근본적인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 "켜켜이 쌓인 묘사"는 신비평의 "꼼꼼히 읽기(close reading)"와도 구별되어야 한다. 언뜻 보기에 "꼼꼼히 읽기"는 텍스트 내부에 빽빽하게 들어찬 복잡한 의미구조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풀어내는 작업을 지칭하므로 기어츠의 개념과 겹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신비평의 "꼼꼼히 읽기"야말로 특수에서 보편으로의 이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비교)문학의 대표적 방법론이다. 짧은 시 한 편으로 서구문학 전체를 논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꼼꼼히 읽기"의 문학적 공헌(?)이다. 게다가 최근 "꼼꼼히 읽기"는 문학연구 방법론으로서 교조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며 의미구조의 다양한 층위를 기술하기보다는 그와는 반

www.kci.go.kr

대로 작품의 “통일성”을 강화하는데 더 많이 활용된다.

문학연구가 “켜켜이 쌓인 묘사”를 방법론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문학이 이제까지의 수행방식을 전면적으로 쇄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그 문학연구는 아직 우리가 해보지 못한 언어적 실천의 형태일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개별 텍스트・작가・문화・담론들을 일대일로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대한 또 다른 해석, 담론에 대한 또 다른 담론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긴 네트워크”의 모양새가 될 것이다. 의미구조를 충실하게 기술하면서 그 기술로 하여금 연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길로 끌고 가게끔 하고, 텍스트 안에 쌓인 의미의 지층들을, 그 복잡성과 단독성을 최대한 풍성하게 드러낸다면, 그리고 그런 “켜켜이 쌓인 묘사” 위에 또 다른 “켜켜이 쌓인 묘사”가 쌓이고 덧붙여지고 모아져서 더 큰 지층들을 만들어낸다면, 멀리서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형태를 (겨우) 띨 수도 있다. 그것은 작가 개인의 소유도 아니고 특정 민족의 민족지학도 아니며 권력체제의 담론도 아닌, 순전히 언어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두께에 의해 익명성을 확보한 그 무엇일 것이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푸코가 던지는 질문들, “담론의 존재방식은 무엇인가?” “이 담론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순환되며 누가 통제하는가?” “누가 주체의 기능을 채울 것인가?” 등 담론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조망하기 위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13]

---

13) Foucault, “What Is an Author?”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 longer the tiresome repetitions:
“Who is the real author?”
“Have we proof of his authenticity and originality?”
“What has he revealed of his most profound self in his languages?”
New questions will be heard:
“What are the modes of existence of this discourse?”
“Where does it come from, how is it circulated, who controls it?”
“What placements are determined of possible subjects?”
“Who can fulfill these diverses functions of the subject?”
Behind all these questions we would hear little more than the murmur of indifference:
‘What matter who's speaking?’

www.kci.go.kr

참고문헌

Ahmed, Siraj, “Notes from Babel: Toward a Colonial History of Comparative Literature,” *Critical Inquiry* 39, 2013.

Bhattacharya, Baidik, “On Comparatism in the Colony: Archives, Methods, and the Project of Weltliteratur,” *Critical Inquiry* 42, 2016.

Chow, Rey, “The Old/New Question of Comparison in Literary Studies: A Post-European Perspective,” *ELH* 71.2, 2004

Dimock, Wai Chee, “Weak Theory: Henry James, Colm Toibin, and W. B. Yeats” *Critical Inquiry* 49.4, 2013.

Foucault, Michel,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 Selected Essays and Interview by Michel Foucault*. Ed. by Donald F. Bouchard. Ithaca, Cornell UP, 1977.

Geertz,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Books, 1973.

_____, *Works and Lives: The Anthropologist as Author*, Stanford: Stanford UP, 1988.

_____, “A Strange Romance: Anthropology and Literature,” *Profession*, 2003.

Greenblatt, Stephen, “The Touch of the Real,” *Representations* 59, 1997.

Liu, Lydia, *The Clash of Empires: The Invention of China in Modern World Making*, Harvard UP, 2004.

Dirks, Nicholas B. ed., *In Near Ruins: Cultural Theory at the End of the Century*, Minneapolis: Minnesota UP, 1998.

Mufti, Aamir R., “Orientalism and the Institution of World Literatures,” *Critical Inquiry* 36, 2010.

Reddy, William, “Anthropology and the History of Culture,” from *A Companion To Western Historical Thought*, eds. Lloyd Kramer and Sarah Maza.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2002.

Roseberry, William, “Balinese Cockfights and the Seduction of Anthropology,”

www.kci.go.kr

Social Research 49.4, 1982.

Sakai, Naoki, *Translation and Subjectivity: On "Japan" and Cultural Nationalism*, Minneapolis: Minnesota UP, 1997.

Sewell, William H., "Geertz, Cultural Systems, and History: From Synchrony to Transformation," *Representations* 59, 1997.

www.kci.go.kr

ABSTRACT

Thick Description as a Methodology of Comparative Literature

Park, Seonjoo

This paper proposes a new direction for Comparative Literature which has been deeply Eurocentric and even colonial ever since its birth. 'Comparison' in Comparative Literature has been in fact the ideological mechanism for containing, classifying, and eventually controlling all differences in the world. Literature has naturally served as a national institution of the West at epistemological and discursive level with hidden adjective "comparative". To re-conceptualize the discipline and practice of "Comparative Literature", we need to revolutionize methodology itself based on Wai Chee Dimock's idea of "Weak Theory", Foucault's "disappearance of author", and Clifford Geertz's "thick description". "Thick description" as a methodology of comparative literature re-establishes the discipline as a field of "weak theory", defusing the centrality of linguistic identity and re-making it as a "long network" of loose and missed connections. "Thick description" poses the publicness of nation-state within "confusion of tongues", problematizes the legitimacy of modern knowledge, and puts (the western) nationalism in question. With this idea as a starting point, we can re-imagine Comparative Literature anew as a field of ceaseless discourse of longer, weaker, and thicker networks of interpretation and re-interpretation of differences.

Key Words : comparative literature, methodology, Clifford Geertz, thick description, Weak Theory

www.kci.go.kr

▌논문접수일 : 2018. 02. 10
▌심사완료일 : 2018. 02. 28
▌게재확정일 : 2018. 03. 01

www.kci.go.kr